

장백산천지

제 281 호

2016 년 7 월 7 일

수요일

美 종교자유위원회 전문요원, 장쩌민을 고소한 파룬궁수련생의 석방을 호소

[밍후이왕] 중국 대륙 일부 지역에서 장쩌민을 고소한 파룬궁수련생들이 지속적으로 경찰의 소란과 납치 및 체포를 당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동아시아 정책분석 전문요원 티나 머포드(Tina Mufford)는 지난 2016년 6월 1일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공산당의 이런 법을 무시하는 납치 행위는 근본적으로 불합리한 것이며 장쩌민 고소로 감금된 수련생들은 마땅히 석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공이 장쩌민을 고소한 파룬궁수련생을 납치, 체포하는 행위는 불법

중국대륙에서 나타난 20여 만 파룬궁수련생들 및 그 가족들이 장쩌민을 고소하는 열풍에 대해 티나 머포드는 말했다. “이런 법률고소 행위는 정말로 일종 표준이며……이런 사람들은 신앙으로 인해 너무 오래 박해를 당했습니다.” “중공은 장기간 종교 신앙자들을 박해했고, 법을 어기고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감금, 고문, 성폭력, 정신질환 실험과 강제 생체 장기적출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매 하나의 사건들은 모두 비극이며 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조롱입니다.”

머포드는 장쩌민 고소로 납치된 파룬궁수련생들을 석방할 것을 호소했다 “그들(파룬궁수련생)은 마땅히 석방돼야 합니다. 그들이 감금된 것은 근거가 없으며 그들은 다만 자신의 신앙의 권리를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할 권리가 있습니다.”

【배경】대륙 일부 지역에서 장쩌민을 고소한 파룬궁수련생들이 불법납치와 체포 당해

2015년 5월 중국공산당 당국은 ‘안건이 있으면 반드시 입건하고, 고소가 있으면 반드시 심리한다’는 새 규정을 내놓았다. 2015년 5월부터 현재까지 20만 명을 초과하는 국내외 파룬궁수련생 및 가족들이 실명으로 중공의 파룬궁 박해 원흉인 장쩌민을 최고검찰원과 최고법원에 고소했다. 이런 고소인 혹은 그들 가족들은 중공의 파룬궁에 대한 박해 중에서 심한 박해를 당했고 심지어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다.

밍후이왕 보도에 따르면 현재 대량의 파



2015년 5월부터 현재까지 20만 명을 초과하는 국내외 파룬궁수련생 및 가족들이 실명으로 중공의 파룬궁 박해 원흉인 장쩌민을 고소하는 열풍이 일어났다.. 그림은 2015년 7월 홍콩 대 행진에서 나타난 거대한 표어

룬궁수련생들이 전달한 고소장은 이미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에 안전하게 전달됐다. 그러나 대륙 일부 지역에서는 장쩌민을 고소한 파룬궁수련생이 지속적으로 불법으로 소란과 납치, 체포, 재판에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7개월간 랴오닝성 차오양시에서는 최소 20여 명의 파룬궁수련생들이 법에 따라 장쩌민을 고소한 이유로 불법 징역을 선고 받았고 형기는 최장 12년이었으며 현재 여전히 50여 명이 불법 재판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대륙의 일부분 경찰은 여전히 장쩌민 집단의 파룬궁 박해지령을 집행하고 있으면서도 이는 완전히 ‘헌법’을 위반했음을 모르고 있다. 2016년 3월 1일, 중공 공안부는 경찰의 법 집행 과정에 나타난 고의 혹은 중대한 오판사건에 대해 법률 집행 과실책임을 종신 추궁하는 신 규정을 실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중공경찰이 파룬궁수련 신앙단체에 대해 대규모적인 박해를 감행한 각종 불법행위는 그 책임을 평생 추궁하게 될 것이다. ◇

당신의 평안을 성원

대법이 널리 전해진 23년간
무수한 가정이 수해를 받았네
질병의 제거와 신체 건강에 기이한 효과가 있고
도덕이 다시 상승됨은 더욱 기묘하네
얼마 많은 고질병이 완쾌되고
얼마 많은 가정이 또 화목해 졌던가
얼마 많은 장애자가 걸을 수 있었고
얼마 많은 방탕아가 되돌아 왔던가
대법을 선의로 대하는 정념(正念)이 생기면
하늘이 복을 내려 평안을 보장받을 수 있네





대륙의 많은 변호사들이 장쩌민을 고발할 준비를 하다

며칠 전, 원 상하이 저명한 변호사 정언충(郑恩宠)은 언론 취재를 받을 때 “장쩌민은 파룬궁문제 처리에서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이 중공의 상투적인 수법을 사용해 파룬궁 단체를 맹아상태에서 소멸하려고 생각했다.” “이는 세상의 보편적 가치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중국 자체의 기존 법률에도 위반된다.”라고 지적했다.

미국 인권 법률협회에서는 “장쩌민이 발동한 파룬궁에 대한 박해는 완전히 법률근거가 없으며, 형사법률 혹은 절차에

따른 법 집행 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한차례 완전한 법외의 정치운동이다. 이 운동이 21 세기의 중국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중국의 법제 건설이 크게 퇴보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정언충 변호사는 대륙의 일부 변호사, 법학 교수도 법적인 측면에서 장쩌민을 고소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국제법정에서 철저하게 죄를 언도할 수 있는 법적 측면에서 토의하고 있다고 표시했다. ◇

정법위원회 인원의 말실수로

‘텐안먼 분신자살’ 진상이 폭로돼

[밍후이왕] 2001년 9월, 료닝 둥강시 정법위원회와公安 부문은 공모해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는 세뇌반을 꾸려(불법으로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는 검은 감옥) 강박과 기만수단으로 파룬궁수련생의 ‘真, 善, 忍(眞, 善, 忍)’신앙을 포기하게 하려 했다.

세뇌반에서 파룬궁수련생들은 당시의 정법위원회 사무실 부주임 자오위룽에게 파룬궁진상을 말하면서 ‘텐안먼 분신자살’은 가짜고 중공이 파룬궁에 죄를 덮어씌우려고 음모 조작한 속임수라고 알려주었다. 자오위룽은 듣고서도 대답을 피했다. 며칠 후 파룬궁수련생들이 또다시 조위룽에게 ‘텐안먼 분신자살’ 진상을 알렸다. 당시 방에는 파룬궁수련생이 4명 있었다.

당시 조위룽은 귀찮아 하면서 말을 가로챘다. “분신자살에

대해 우리는 벌써 사전에 알고 있었다.” “이 일은 2001년 1월 23일, 다시 말해 선달 그믐날 오후 1시에 발생한 일이다. 우리는 1월 21일에 파룬궁이 1월 23일 텐안먼 광장에서 중대한 사건을 벌인다는公安부의 긴급통지를 받았다.” 파룬궁수련생이 말했다. “보라! 스스로 드러내지 않았는가? 그들이 어떻게 이 일이 곧 발생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이것이 미리 계획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자오위룽은 자신이 말실수를 했다는 것을 알았다.

‘텐안먼 분신자살’은 장쩌민 집단이 파룬궁에 죄를 덮어씌우려고 음모 조작한 속임수이다. 파룬궁 서적에는 살생과 자살은 모두 죄가 있다고 가르쳤다. 진정한 수련인은 절대로 살생과 자살, 분신자살은 하지 않는다. ◇ (문/조메이)

의학상식에 의하면, 세균간염과 생명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대면적인 화상 환자는 격리실에 있어야 하며 환자를 만나려면 격리옷, 모자, 수갑을 꺼야 한다. 하지만 관방기자 리위창은 편의를 입을 입고 가까운 거리에서 류스잉을 취재하고 있으니 바로 연극이다!



지린성 통화시 연수팡 등 5 명이 안투(安圖) 현에 감금되어 있다

통화시 파룬궁수련생 연수팡(闫淑芳), 장슈잉(张秀英), 장카이(蒋凯)와 저우슈롄(周秀莲), 양양(杨阳)모녀는 4월 24일에 납치되었고, 며칠 전에 다섯 사람은 이미 지린성 안투현으로 납치되어 갔다.

소식에 따르면 경찰은 보름 전에 누가 엔지시에서 파룬궁 진상소책자를 배포했는가를 알아내기 위해 위에서 말한 5명의 파룬궁수련생을 납치했다고 한다.

경찰은 불법적으로 파룬궁수련생 장카이 자가 용차를 몰수했고, 신잔에 있는 연수팡의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빈 집의 문을 억지로 비틀어 열고 들어가 집안의 대량의 재물을 강탈하고는 압수물품 목록도 주지 않았고, 가족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심지어 불법 구류 통지도 5월 20일 후 가족이 안투현公安국에 가서 요구해서야 임시로 만들어 주었다.

가족은 연수팡이 불법으로 15일 구류 당한 후 안투현으로 보내기 전에 통화시 구치소에서 보내온 전화를 받았는데 연수팡에게 병 치료에 쓸 돈을 보내라고 했다. 가족이 무슨 병인가 묻자 구치소 옥경은 밥을 잘 먹지 못하기에 영양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어물어물 말했다. 가족이 구치소에 찾아가 연수팡의 정황을 캐묻자 경찰은 또 연수팡은 아직도 밖에서 심사를 받는다고 했다. 연수팡은 전에 두 번 밖에서 심사 받았던 경력이 있었는데 이왕의 경력에 의하면 밖에서 심사 받는다는 것은 대부분은 고문구타를 받는 것이다. 가족은 연수팡이 근 한달 동안 당한 박해에 대해 아주 근심하고 있다. 5월 21일, 가족은 연수팡이 이미 엔지 구치소에 감금됐다는 소식을 알게 됐다. 가족은 이미 그를 위해 무죄변호 할 변호사를 청했다.

28 세인 양양은 어려서부터 박해 받았고, 양모 저우슈롄과 함께 생활했다. 1999년 저우슈롄은 수련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하게 되어 부득이 유리걸식을 하게 되었다. 겨우 11살 밖에 안된 양양은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양모가 있는 곳을 알게 된 양양은 즉시 날도 밝기 전에 큰 눈을 밟으면서 엄마를 찾아 떠났다. 가는 길에 돈 한 푼도 없어 그는 배고픔을 참으면서 산을 넘고 영을 지나 오후 5시 넘어서야 겨우 엄마를 찾았다. 그때로부터 양양은 학교도 다니지 못하게 되었다. 겨우 17세가 됐을 때 착한 사람이 그를 도와 신장사를 하게 했다. 하지만 박해는 계속 창궐했다. 경찰은 여러 번 양양의 아르바이트 하는 부근에 매복해 있으면서 그들 모녀를 세뇌반으로 납치해 가려 했다. 그들 모녀는 또다시 먼 타향으로 떠났지만 불행하게도 이번에 또 납치됐다.